





社 說

2025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말에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이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피력했다.

한기총,한교총,한교연은 분열과 반목에 곪들여진 한국교회의 지금 이 모습으로는 풍전등화에 처한 나라와 사회를 견져내기에는커녕 함께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나라와 사회, 교회가 살려면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야당에 탄핵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치적 갈등과 반목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무안국 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화재 참사 충격이 더해지면서 국민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탄핵정국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듯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하면서 야당이 다시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흐드는 게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한 원인일 것이다.

이런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은 새해가 됐어도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 중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고 가슴 한구석이 막 막한 듯 체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온 매스컴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서 TV커기조차 두렵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공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는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헌법 재판관 공석 사태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일시에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기 대선 여부 등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잠잠히 기도에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탄핵찬반집회에 나가 정치적 소신에 따른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그건 오롯이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본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됐을 때도 서울 도심에선 매일 밤낮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참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했다. 지금 그때와 거의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상대에 대한 공격 성향이 두드러지는 점은 9년 전과 판박이다. 다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일종의 학습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쏠림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침묵하는 다수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으면 여론의 왜곡 현상에 지배당하게 된다. 주위의 목소리가 클수록 정확한 판단보다 모종의 압력이 지배하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강도에 따라 좌우로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정치 집회 참가자들이든 파켓과 숫자에 신경쓰다보면 이들도 활인 많은 침묵하는 다수를 잊게 된다.

교회가 2025년 신년사에서 혼란한 시국에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책임에 따른 중보와 기도를 요청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홉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편 46:10-11)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성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서울남노회 동부시찰소속 수원성심교회(박준배 목사)는 2024년 12월 21일(토) 오전11시 박지만 목사를 담임목사로 취임하며, 원로목사로 박준배 목사를 추대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원로장로 추대에 김수근 장로와 장로은퇴 홍범식 장로, 4명의 안수집사 은퇴, 13명의 권사의 은퇴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박준배목사의 헌신적인 목양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안정되었다.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영예롭게 은퇴함과 동시에, 청빙위원회에서는 박지만 목사를 청빙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지만 목사는 부산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수원성심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부노회장 김종성 목사(신석교회)의 사회와 대



표기도에 증경노회장 임진철 목사(낙원교회), 성경봉독에 회록서기 김문옥 목사(안양중앙장로교회), 말씀선포에 노회장 이다윗 목사(감사와찬양교회)는 히13:15~21의 본문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권면에는 증경노회장 강대민 목사(성원교회), 축사에는 증경노회장 김만술목사(새목장교회), 증경노회장 장영광목사(감사와찬양교회)가 축도하여 은혜중에 예배를 마쳤다.

전북동노회 신년하례회

1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전주 덕진구, 더풍성교회(강일신 목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노회”란 주제로 신년하례회가 있었다.

예배인도자 노기 양정자 목사(빛과진리교회)는 신앙고백 후 찬송 1장을 다같이 부르고 장로 부노회장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로 기도케 한 후 랩33:2-3절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제로 말씀선포 후 찬송 354장을 같이 부르고 직전노회장 김종봉 목사(낙원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신년하례 인도자 노회장 강일신 목사는 부노회장 양기만 목사로 기도케 한 후 신년사에 증경노회장 이경근 목사와 정인직 목사가, 축사에 증경노회장 채영구 목사, 유남규 목사가,



합심기도로, 노회임원을 위하여, 노회기관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위하여 기도한 후 노회임원, 교역지회, 시찰회와 부서가 인사와 덕담을 하고 김진문 장로(낙원교회)가 광고 후 증경노회장 주상기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식사하며 친교를 하였다.

2025년도 전북중부노회 신년하례회

전북중부 노회(노 회장 박숙희 목사)와 교역자회(회장 진상운 목사)는 연합으로 지난 1월 13일(월) 오전 11시에 성인교회(정완득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노회와 교역자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했다. 행사에 앞서 노회서기 정형남 목사(벤엘교회)의 예배 인도로 시작하여 증경노회장 양형용 목사(군산성은교회)의 기도가 있었으며 성경 이사야40:28-31절을 봉독하고 성인교회 여성중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 성인교회 담임목사인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가 “새롭게 성장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노회원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행사 때마다 잘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한 후 교역자회 서기 장병수 목사가 광고하고 정완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성인교회 위습사역자 김은하 권사가 공연하고 2부 순서로 하례식을 교역자 회장인 진상운 목사 사회로 노회장 박숙희 목사와 증경총



회장 임중학 목사 그리고 증경노회장이면서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인 김황용 목사의 새해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케익케팅과 악수례가 있었는데 전노회원들이 나와 서로 악수하며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를 가졌다. 그리고 단체사진을 찍고 성인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인교회에서는 노회원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여 한껏 새해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 신년하례회를 마쳤다.

전북동노회 제403차 여전도월례회

2025년 1월 14일 제403차 전북동노회 여전도월례회가 좌포은총교회(주상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은 매우 추운날씨와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송해나 목사(생명빛동산교회)의 찬양인도 후 1부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인도자 회장 윤순일 전도사 (평안교회)는 김명숙 권사(좌포은총교회)로 기도케 한 후 좌포은총교회 주상기 목사가 “기록하고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때 하나님께 기록되고 기억되는 여전도



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뜨겁게 전한뒤 유남규 목사(동명교회)가 여전도회에 특별감사헌금을 전하는 훈훈함도 나눈뒤 노회장 강일신 목사(더풍성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전북개혁신학원 총동문회 정기총회

전북개혁신학원 총동문회(전북동노회 회장 김종봉목사)는 1월9일(목)오전10시30분에 전북개혁신학원 소강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에 가졌다. 총회에앞서 1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부서기 양정자 목사(빛과진리교회)의



인도로 삼일부회장 정대진 목사(온전주교회)의 기도과 성경 사도행전1:1-8을 봉독하고 증경회장 유호걸 목사(예림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경회장 신장균 목사(장수은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총동문회장 김종봉 목사(낙원교회)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부회장 고영순목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양정자목사가 서기 보고하고 이하중 목사가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임원선출로 들어갔는데 임원선출은 증경회장을 지내신분들을 전형위원하고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대진 목사(동서) 삼일부회장 고영순 목

사 부회장에 한권능 목사(전북), 강일신 목사(전북동), 박숙희 목사(전북중부), 박찬섭 목사(전북중부), 김대성 목사(동서), 서기 이하중 목사(동서) 회계 양정자 목사(전북동)

안건으로 임원회비는 회장100만원, 삼일부회장50만원, 부회장 30만원 기타 모든임원은 2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동문회의 활성화의 건은 전북개혁신학원을 졸업한 모든 졸업자들에게 임회원서를 받고 년 3만 원의 임회비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안건은 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모든 위원회 사무를 마치고 점심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총동문회의 모임을 갖지 못해 아쉬웠으나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노회 신년하례예배

서울남노회는 1월 13일(월) 오전11시 충남 아산시 양곡제일교회(문만호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에서 서기 문만호 목사(양곡제일교회)가 예배인도를 하였으며, 기도에 부노회장 김종성 목사(신석교회), 성경봉독에 부회록서기 이행용 목사(한누리교회), 증경노회장 장영광 목사는 마4:12~17절의 본문으로 “주님의 사선이 머무는 곳”의 제목으로



말씀선포하였으며, 이후 특별기도에 1)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증경노회장 박준배 목사(수원성심교회 원로), 2)총회와 영적회복을 위해서 증경노회장 김정용 목사(중울산교회), 3)노회와 개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남중회 목사(아름다운교회), 4)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지를 위해 회계 이영훈 목사(함께하는교회), 5)목회자 가정과 영적회복을 위해서 부회계 차은영 목사(울석시은

산교회)가 연이어 기도하였다.

이어서 신년사에 증경노회장 강대민 목사(성현교회), 알리는 말씀에 부서기 박순종 목사(임광사랑의교회), 축도에 증경노회장 김성진 목사(신상도교회)가 순서를 맡았다. 오

찬기도에는 증경노회장 김선영 목사(높은뜻세움교회)이후 여러 섬김을 통해 오찬과 차담회를 함께하며 2025년 한 해의 목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개혁공보 1년 구독료 후원 협조문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총회개혁공보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모두들 힘들겠지만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개혁공보 1년 구독료 5만원, 명함광고비 30만원

한번 납부해주시면 신문발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회 분납하셔도 됩니다.

송금하실 때 꼭 교회명이나, 담임 목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장 김의철 목사

총회개혁공보 구독료 1년 5만원

교회 명함광고비 1년 30만원

노회파송비 매월 1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40-5587-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문의/ 010-6358- 0191 편집국 / 박만진 목사



총회개혁공보사

발행인 김 정 호 목사  
이사장 권 병 략 장로



조직신학



유정선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서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즉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구원의 근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이심을 성서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둘째 승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첫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의 댓가로 온 인류의 육체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체적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들은 자연주의적 사고를 지니고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탄생하기 이전부터 부활이나 이적을 철저히 부인하였다.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인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 앞장서서 반대하고 도전하였던 것과 달리 부활을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의 부활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파하던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중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뒤늦게 깨닫고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현대에까지 지속적 현상이었는데 자연주의적 사고를 지닌 신학자들

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향으로, 이상주의적 사고를 지닌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되었던 그 육체로 사흘만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5:1-10뿐 아니라 마태복음 28:5-6, 요한복음 20:26-28 등 신약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듯이 부활의 확실성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사건(고전 15:3-8)을 비롯하여 무덤이 비어 있었던 사실(마 28:5-6)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이들의 증언(요 20:13-1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들(행 3:6)과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행 1:-2),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안식일 예배에서 일요일, 즉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셨음을 기념하여 주일예배가 확립된 것 등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죽음과 부활에 이어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는 요건은 승천하심이다(행 1:9).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였음을 사도행전 1:3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천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친히 대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피를 드리셔야만 하셨다.(히 9:5-12; 10:4)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죄 용서함을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칭의)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 승천은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시키는 방법이였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구원의 근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이다.

동 정



김의철 목사(증경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1월 5일(주) 일본선교 출국  
1월 23일(목) 인기총 상임회장단 모임  
1월 26일(주) 일본선교 탐방



임종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  
1월 6일(월) 총회 신년하례 축도  
1월 13일(월) 중부노회 신년하례  
1월 18일(월) 전북신학원 졸업식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2월 17일(화)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동명교회) 축도  
12월 30일(월) 전북개혁신학 졸업사은회 축하  
1월 6일(월) 본 교단 신년하례회에 참가 인사



정완득 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  
12월 30일(월) 전북신학 졸업사은회  
1월 13일(월) 중부노회 신년하례회 설교  
1월 18일(토) 전북신학교 졸업식 시상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월 13일(월) 서울동노회 신년하례  
1월 18일(토) 사랑과 열매 신년감사 설교  
1월 20일(월) 임마누엘교회 신년집회



박형진 목사(증경총회장, 새은혜교회)  
1월 1-3일(수) 새은혜교회 신년축복성회  
1월 6일(월) 경서노회 신년하례  
1월 12-15 회전서부교회 부흥성회



이경근 목사(증경총회장, 평안교회)  
1월 9일(목) 전북개혁신학원 총동문회 축하  
1월 13일(월) 전북동노회 신년하례회 신년사  
1월 18일(토)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식 설교



홍주일 목사(서기, 모악교회)  
1월 6일(월) 총회 신년하례  
1월 6일(월) 전북노회 신년하례  
1월 18일(토) 전북신학원 졸업식



정대진 목사(온전주교회)  
1월 6일(월) 총회 신년하례 참석  
1월 9일(목) 전북신학동문회 회장 선임  
1월 18일(토) 전북신학원 졸업식 사회



이하중 목사(회의록서기, 하늘문교회)  
1월 6일(월) 총회 신년하례 참석  
1월 9일(목) 전북개혁신학원 총동문회  
1월 18일(토) 전국신학원 졸업식 참석



박채배 목사(수원성심교회 원로목사)  
12월 21일(목) 수원성심교회 퇴임  
12월 21일(토) 수원성심교회 원로목사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1월 6일(월) 총회 신년하례  
1월 7일(화) 한국신학원회 총회  
1월 9일(목) 2025년 부활절 연합행사 준비  
1월 18일(토) 전북신학원 졸업식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뫼르팅이 설명하는 행위언약에서의 특징들을 그대로 채용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게할더스 보스(1862-1949)이다. 보스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을 첨가하였다는 것이다.

보스는 자연적인 관계성과 언약적 관계성의 차이는 논리적이며 심판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담은 행위언약을 벗어나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아담이 행위언약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다. 행위언약이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에, 그 어떤 조건들 속에서도 자연적인 관계성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보스는 누구보다도 행위언약의 성경적 정당성을 옹호했는데, 특히 루터파에서 이 언약개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는 여기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그쳐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아담 안에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은 만일 첫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확고하게 유지했었다면 그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성취했었을 수도 있었던 것들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가 어떤 칭의론을 옹호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관심 사항은 예정이 아니라 칭의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1609년에 출판한 자신의 입장에의 「변호(Apology)」에서 주로 믿음에 대한 해명을 주력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저술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볼 때, 그가 당대에 일어나고 있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상당히 모호하고도 양면적으로 이 주제를 다뤘다는 사실이다.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은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멀리 벗어나 버렸다. 더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피스카토르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거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의 입장과 유사할 정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도록 열어놓았고,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며, 반응하고 협력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거의 알미니안주의와 흡사하다. 돌트 총회에서는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자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도덕적 통치설(moral government theory)”이라는 가설적인 속죄론을 제기했다. 즉,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의 가설적인 희생을 드려서 복수적 공의를 만족하였고, 실제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의 입장은 개혁주의자들의 형벌 대속설과 소시니안들의 “도덕적 감화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단지 하나님이나 수용하려는 열망에서 이 만족을 허용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부가 실제로 모든 인간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지 위해서, 모든 것에 상응하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단일한 희생만을 드렸다는 것이다. 뫼르팅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허락했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따라서, 이 대속이 단순히 자기 주인에게서 해방된 노예와 같은 식상이나, 적의 손으로부터 포로를 탈취하는 용기와 힘이나, 흔히 전쟁에서 발생하는 교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원자가 채무자를 위해 빚을 갚아주는 공정한 만족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비록 우리의 관련해서는 은혜의 구원이 일어나고, 악마에 관해서는 한 힘에 의한 구조가 존재하며,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하나의 교환이 사실이지만, 심판자인 하나님에 관해서는 공정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편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엄

격한 의미의 대체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언급이다. 롬5:6-7;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흔치 아니하다.”

또한 뫼르팅은 “플라카에우스와의 논쟁”에서도 정통신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 프랑스 소무르 아카데미(the Academy of Saumur)의 신학자 플라카에우스(Joshua Placaeus, 1596-1655)가 샤렌톤 총회(1644-1645)에서 아담이 지은 죄의 전가교리를 거부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다. 총회는 즉각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판정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메리에 교수가 새롭게 정리해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었다. 프랑스 출신으로 네덜란드 브레다 오렌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개혁주의 신학자 앙드레 리베(Andre Rivet, 1572-1651)가 앞장서서 플라카에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리베의 저서들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이작달 알렉산더가 자신의 저서 「신앙체험에 대한 사색(Thoughts on Religious Experience)」에서 크게 활용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유사펠라기안주의(semi-pelagianism)”에 근거한 것이다. 능동적 순종을 거부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교육부 평가인정 원격교육기관

www.scyberedu.co.kr  
blog.naver.com/scyberedu

서울사이버에듀 원격평생교육원

서울사이버에듀는 2009년 교육부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은행제로 인정된 원격교육기관입니다.

**학점은행제**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대학교 중퇴자의 경우 학력을 개선했 수 있으며,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입학에 위한 타전공 복수 학위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

서울사이버에듀 운영과목	
2년제 학위	사회복지 전공, 경영 전공, 아동·가족 전공
4년제 학위	신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경영학 전공, 심리학 전공, 상담학 전공, 아동학 전공
자격증 과정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학위별 취득 학점 비교 *단, 전공필수과목은 과목 또는 학점으로 이수(1과목 3학점 기준)			
학위 구분	전공 학점	교양 학점	일반선택 학점
2년제 전문학사(총 80학점 이상)	45학점	15학점	21학점
4년제 학사(총 140학점 이상)	60학점	30학점	51학점

신학 학사 학위 취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교회 직분을 능력있게 감당하려는 분, 더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분,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분, 선교사의 길을 계획하는 분,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분  
▶ 국내의 신학대학원을 비롯하여 해외의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 건강가정사 자격증 동시 취득 가능!

- 이론 전과목 100% PC, Mobile로 수강 가능 / 제주도 도서지역 상담 후 수강신청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국 가능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충청도, 대전, 강원 (영동, 영서) / 전라도, 경상도

심리학·상담학 대학원 진학 희망자라면!

- 대학원 입학 조건인 '선이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 전문상담교사 임용, 심리상담 전문가, 전문심리상담센터 등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우대)
- 자격확인서 취득 기준 완화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소지 시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6층 | 신규학습문의 : 1644-8056 | 행정문의 : 032-465-4200



지 상 설 교

악한 것을 자랑하라

고후12:9-10



서용진 목사  
(상조교회)

바울에게는 육체의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세 번이나 드렸지만 고통의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와는 다르겠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고통스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려고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보다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다른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만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입니다.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이는 내가 악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 놀라운 패러독스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울 안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능력은 모두가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장 악하고 약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은 강조하고 자랑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은 나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볼 때 그의 신분, 학력, 위치 등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 다. 과거 뿐만 아니라 본분 당시에도 그는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있는 체험이 아닌 아주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고후12:1-4에서 바울은 그 체험을 한 사람을 3인칭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신비적인 체험마저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스럽게 내어 놓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사도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앞장인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에 간하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으며 수없는 위협 속에서 고통을 당한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것을 열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견디게 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요 개인적으로는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연약할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철학이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후11:30, 12:5, 9, 10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악할 때가 아니라 연약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완성하고 했었다는 자만심으로 여러분을 포장하지 말고 약함을 진실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남모르는 고통이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괴로워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악할 때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은혜로 재움을 받으며 잘 감당하게 되고 연약함대로 연약해질 때 온전히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나의 것을 자랑함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약함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맞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악함 그 자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약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계선교(아시아) 기도제목

중국-2025년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더욱 고조될 듯

2024년 1월에 치러졌던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과의 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다. 라이칭더(Lai Ching-te)가 총통으로 선출되고 5월에 취임하자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훈련까지 단행했다. 2025년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남중국해 남쪽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를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곳은 약 70여 개의 작은 섬들이 밀집해 있는 군도이다. 필리핀은 팔라완주(州)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사비나솔(Sabina Shoal)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2024년에 해안 경비대 선박을 5개월 동안 주둔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미 1999년부터 세컨드토마스솔(Second Thomas Shoal)을 통제해 오면서 해상에 필리핀 군대를 주둔시켜왔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필리핀 보급선의 접근을 막으면서 몇 차례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응해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스프래틀리에서 점유하고 있는 섬 주변으로 준설과 매립을 계속해 왔는데, 2025년에는 두 번째 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한 몇몇 섬들을 자국영역으로 주장하면서 탄화수소 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극한 대립과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고한 피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필리핀 - 무슬림 다수 지역 이외에 사리아 사법구역 3곳 추가돼

기독교 인구 비율이 92%를 넘는 필리핀에서 민다나오의 방사모로(Bangsamoro) 지역만은 이슬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1977년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의 방사모로무슬림자치구(BARMM)를 관할하는 사리아 지방법원 지정을 승인했고, 지금까지도 이곳은 이슬람 법률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 전역으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속이나 이혼과 관련하여 남부에 멀리 떨어진 사리아 법원을 찾아야 하는 무슬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리

아 사법구역이 추가되었다. 지난 8월,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지정된 5곳의 사리아 사법구역에 더해 3곳을 추가했다. 새로운 사법구역은 민다나오의 다바오 지역, 세부 지역,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지역 일부이다.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방사모로 의회의 마왈릴(Amir Mawallil) 의원은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이슬람법에 따른 정의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됐다면 서 환영했다. 필리핀선교협회(PMA)의 전임 대표였던 코르푸즈(Rez Corpuz) 박사는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이지만 1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을 사회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필리핀 남부에서 26년간 봉사한 한 선교사는 사리아법의 확대에 대해 놀라면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안티폴로승리교회(Victory Antipolo Church)의 노네스(Gab Nones) 목사는 사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전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필리핀 기독교계가 이슬람 확장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무슬림들을 향한 배려와 포용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적 전략과 방향을 세워가도록 기도하자.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104개 교단 아우르는 협의체로 성장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개신교와 가톨릭 인구를 합한 비율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2억 8천만 명의 인구 중 3천만 명이 가깝다. 1950년에 창립된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FGI)는 지금까지 97개 교단이 가입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이슬람 사회 안에서 교회들이 겪는 차별과 핍박에 대응하는 일을 맡아 왔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18차 총회에서 7개 교단이 새롭게 가입하면서 104개 교단을 아우르는 협의체로 발돋움했다. 이번에 가입한 교단은 바누아케리스노아스 개신교회(BKPN), 성경기독교연합회(GPKAI), 하나님 의돌보심교회(GAPI), 카바이트교회(KIBAID), 벨열장

막교회(GBT), 그리스도친교회(GPSK), 예수그리스도 주되심교회(GYKT) 등이다. FGI 사무총장인 마누푸티(Jacklevyn Manuputty) 목사는 7개 교단 모두 1만 명 이상의 교인이 등록된 견실한 교단들이고, 교회로서 행정적인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종교국에도 등록되어 있어 가입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가입 승인을 받은 GBT 교단의 총회장인 소에또포(Henoch Soetopo) 목사는 앞으로 더 넓은 통찰력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교회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가 더 큰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슬람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기도하자.

인도 - 2024년에 반기독교 폭력 745건 보고돼

뉴델리에 소재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연합기독교포럼(UCF)이 2024년에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기독교포럼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체적 폭력, 살인, 성폭력, 협박 및 위협, 사회적 제한, 종교 재산의 손실, 기독교 상징에 대한 모독, 기도 행위 제재 등 모두 745건의 반기독교 폭력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폭력이 많았던 주(州)는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시(182건)와 차티스가르(139건)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279건에 머물던 폭력 행위는 2021년에 505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 601건, 2023년 74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UCF의 코디네이터인 마이클(A. C. Michael)은 2024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3년에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고, 인도에서는 거의 매일 2명의 기독교인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 경찰은 시민들의 불만 사례가 FIR(First Information Report)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는데, 2024년에는 단지 47건만이 등록되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2025년도 제14회 한국신학연합회 총회 개최

2025년도 제14회 한국신학연합회 총회가 1월 7일 (화)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소망실에 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신학연합회는 기존 임원을 모두 연임시키기로 했으며, 2025년에는 사이버 신학대학원 설립 및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 한국신학포럼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사 43:19)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 앞서 1부 개회 예배는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의 인도로 이종득 장로의 기도 후 한국신학연합회 사모합창단의 특송, 교육청위원장 민경배 박사의 설교가 있었다.

민경배 박사는 ‘나와 세계’ (눅 9:1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제적인 세

계를 이야기한다”라며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볼 때 세상이 달라지며,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위원회 배경숙 사모의 특별 찬양 후 특별 기도순으로 공동회장이자 신학검증위원장인 이흥선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국신학연합회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석수 목사가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 후 한국신학교육청장 정일웅 박사는 격려사에서 “정치권과 한국교회를 보며 한국신학연합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라며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복음선교를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는 총신사이버신대원을 개설하고 각 교단에서 학생을 보내달고 광고 한 후 탁명진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사이버 총회신대원 모집요강

http://rpcck21.thezonedu.co.kr/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중학 목사

어려울때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신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총회신학연구원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총회신학 연구원 직원일동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1. 접 수 : 2025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이사장 윤서구 목사 / 원장 임중학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09



더불어 생각할 正論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류현욱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어느 시인의 글을 읽고 좀 다듬어 소개해 드린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일과표를 짜던 그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기분과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입 날의 첫 마음으로 변함없이 미소 띤 얼굴로 손님을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런 사람은 바다로 향하는 뱃줄처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과 신념에 차서 시작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과 몸이 피로하게 되고, 환경과 현실 앞에서 처음의 그 계획을 빼앗기고 사라진 것을 보면서 다들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축복을 받은 분이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도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1.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절대 안 된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죄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헛된 풍조, 세상의 현실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라 말씀하였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란 쾌락과 욕심과 술수와 뇌물과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한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것을 제1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받은 성도의 목표가 될 것이다.

2.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자리이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

도록 하는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또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련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도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의지적 결단도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신앙적으로 살펴볼 때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①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

②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 사울을 버리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인물을 찾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십일조를 잘했고 외적으로는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은 썩어 있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신 것이다. 겉모양은 좋는데 속이 나쁘면 그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러나 겉모양은 좀 부족해도 속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③마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근본이 된다. 변화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겉 사람은 낡아 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과 복종과 희생의 마음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마음에 섬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다. 나의 굳은 의지와 나의 노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기경하실 때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는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신교회 담임)

시편 95:6-7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에 초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다윗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였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 “자신을 굽히는 것”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최상위의 존재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이다”

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사43:7)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있는 “타락과 먼지 같은”(욥42:6)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 등과 같은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낙타무릎 같이 되도록 무릎을 많이 꿇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환질고를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화해의 수단이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에 빠지면 이방 나라들에 짓밟혀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레26:37)는 경고와 함께 넘어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아람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레26:40-42)고 하신 말씀이다.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 피조물인 인간, 즉 인류의 시조 아담이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생래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관, 취임한지 하루도 못된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위원장을까지 탄핵을 하고 국가 예산까지 전부 삭감하는 등의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대통령의 통수권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 수괴’로 몰아 탄핵추구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등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이다.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무릎을 꿇는 낮은 곳에 있다. 실제로 “40일 후에 니느웨성이 무너진다”는 요나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구원이 임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은 지금 부패한 정치세력들로 인하여 거센 풍랑을 만난 자유대한민국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에 맡기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95:6).

그렇다. 비상 출구는 낮은 곳에 있다. 즉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아람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레26:40-42)

‘은혜’와 ‘감동’의 차이

을 경험한다. 내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감동을 주고, 유익이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성경 본문에 맞고 안 맞고가 무슨 대수냐는 생각 때문이다.

‘평잡한 게 때’라고, 솔직히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면 되지, 그걸 굳이 성경적이나 아니냐를 따져서 뒤늦게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뭐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다. 나 역시 은혜도 못 끼치면서 너무 ‘성경 본문 본문!’ 하면서 지적하고 따지는 건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사실 본문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달라도 성도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문에 맞지 않은 내용이 전달됐음에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용납하고 지나가버린다면 ‘올바른 성경해석’은 왜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르고 이단적인 내용이 전달됐음에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온 은혜인지에 관한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구원이나 신천지 이단 교주의 가르침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존재하

지 않는가. 이걸 정리하기 전에 또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을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간증집회를 전문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간증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모습을 자주 본다. 나 또한 젊은 시절 간증집회에 많이 다녀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한 번은 간증집회를 전문적으로 해오신 천사같이 착하고 모범적인 지인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교수님, 간증하는 사람들 다수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심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 자신도 사실보다 좀 과장되게 간증을 하니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는 말씀을 하셨다.

탁월한 인격자이신 그 장로님도 어느 해, 과장 되어 간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 년간 집회를 나가지 않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셨다.

우선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은혜’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란 의미임을 분명히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본문의 내용과 틀리는 설교나 과

장되거나 아니면 거짓된 간증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다. 그러면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뭤까? 그건 ‘감동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허구소설’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나 ‘법륜 스님의 설법’을 통해서 감동 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순 없다.

성경 속 진리가 아니라도 가슴 뭉클한 세상 얘기가 도덕적으로 유익이 되는 교훈을 들으면 충분히 감동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상적이고 영적이고 생명력 있는 은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감동만 가지고는 구원 받게 하거나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 되신 말씀과 진실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앙고백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매사에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려 부단히 애써야 하고, 거짓없이 진실된 사실만을 전하기 위해 회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고 살자.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명군 목사



이사장  
권병락 장로



사장  
김의철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총회신학교	2,500,000	광 고 비	700,000	모약교회	350,000
김 명 군	1,200,000	경인노회		꽃밭교회	350,000
김 의 철	400,000	좌포은총교회	50,000	김해수	50,000
권 병 락	100,000	풍성한교회	50,000	남광교회	350,000
경기 노회	500,000	서울남원교회	50,000	예빛교회	50,000
전북 노회	500,000	모리아성구	350,000	박경주	50,000
전북동노회	500,000	길교회	50,000	육한수	50,000
전북중부노회	200,000	이영진	100,000		
서울남노회					
서울동노회					
경서노회					
전남 노회					
남부 노회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당회장 김의철 목사  
(송도가나안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34-17  
전화 032-859-5000



總會 改革公報



예배와 찬양 논문



이다윗 목사  
(총회서기, 천양교회)

(지난호에서 이어져)  
BKC/강해주석도 맨 앞의 “그의”라는 말은 앓수르 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파괴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메데와 바빌론의 방패들은 붉은 색이었는데, 그것은 피가 묻어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나무 방패에 구리를 입혔거나 붉게 염색된 가죽을 입혀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무사들의 붉은 옷은 아마도 그들의 용모에 두려움을 자아내게 해주었을 것이다. 무사들의 나무창이 거친 공격 때문에 요동할(흔들릴)때마다, 병거의 철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고 주석했다.<sup>56)</sup>  
선지자는 군대가 니느웨로 쳐들어오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용사”는 약한 도성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용사이거나, 혹은 1절의 “파괴하는 자들”의 용사이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여기서 “붉으며”(scarlet)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문자적으로는 “병거가 철의 광택으로 불붙는 듯하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즉 노송나무 혹은 실삼나무 창을 휘두르는도다. 호머도 창의 손잡이의 재료에 근거하여 종종 창을 “물푸레나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sup>57)</sup>  
매튜 헨리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아마도 그들이 이미 흘린 피로 물들었거나, 모두를 갈에 붙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또 붉은 깃발을 높이 내걸어,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다는 표로 삼았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이것은 그들이 파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암시하려는 붉은 옷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부를 암시하고 전쟁의 자금을 뜻하는 값진 옷도 뜻한다.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 이리라.” 그들이 접근할 때에 번개처럼 나를 뜻이 행할 것이다. 수레바퀴는 돌 위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그 병거를 모는 자들은 타오르는 듯한 진노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몰 것이라고 주석했다.<sup>58)</sup>  
4절 나훔은 여전히 같은 주제를 계속하고 있다. 즉 그들은 거리에서 맹렬히 날릴 것이다. 난폭한 사람들이 모든 이성과 절제를 잃고

예배에 대한 이해 VIII

맹렬히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예사인 것처럼 그들도 격동하면서 미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나훔은 갈대아인들의 격렬함은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맹렬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온 광포와 미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번개와 불꽃같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말은 비록 과장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무리없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니느웨시(市)가 얼마나 튼튼했으며, 또한 그 시(市)가 멸망한 사건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니느웨 제국은 세상의 어떤 제국보다 탁월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 제국이 공격을 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나훔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앓수르인들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처럼 앓수르인들을 멸망시키시는 여호와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형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sup>59)</sup>  
틴델은 이 전쟁의 주제는 1절에서부터 더욱 상세하게 이어진다. 화려한 군복과 번쩍이는 바퀴와 질주하는 병거소리에 의해 증대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의 철(3절)을 햇불들(‘torches’ AV, RSV; 참조. 4절)로 해석한다.

이 해독은 두 개의 히브리 문자의 위치를 바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병거의 철’이라는 해독을 지지하는 원문적 증거가 강력하다고 했다.<sup>60)</sup>  
니느웨 성을 근교지역에 대한 바벨론의 맹습을 기술하고 있는 셈이다. 잘 닦아 둔 바벨론의 전쟁병거의 금속판은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이들의 기병부대는 말을 타고 질주하며 돌격하고 있었다.<sup>61)</sup>

(다음호에 계속)

- 주석 —  
56) 도날드 수누카만 외, 『BKC/강해주석 아모스 · 오바다 · 요나 · 미가 · 나훔』(서울: 사단법인두란노서원, 2003), p. 253.  
57) W. J. Deane, 『풀핏성경주석;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대구: 보문출판사, 1986), pp. 73-74.  
58) 매튜 헨리,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매튜헨리주석시리즈(30), 홍정수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2), pp. 160-161.  
59) 존 ·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 『칼빈성경주석28』(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pp. 500-501.  
60) 데이비드 W. 베이커, 『틴델구약주석시리즈18 나훔 · 하박국 · 스바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39.  
61)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현대성서주석; 나훔-말라기』(한 · 미공동주석편집/번역위원 민경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52.

연재



김해수 목사  
(예수총교회)

(지난호에서 이어짐)  
BKC/강해주석도 맨 앞의 “그의”라는 말은 앓수르 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파괴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메데와 바빌론의 방패들은 붉은 색이었는데, 그것은 피가 묻어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나무 방패에 구리를 입혔거나 붉게 염색된 가죽을 입혀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무사들의 붉은 옷은 아마도 그들의 용모에 두려움을 자아내게 해주었을 것이다. 무사들의 나무창이 거친 공격 때문에 요동할(흔들릴)때마다, 병거의 철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고 주석했다.<sup>56)</sup>  
선지자는 군대가 니느웨로 쳐들어오는 것

을 마치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용사”는 약한 도성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용사이거나, 혹은 1절의 “파괴하는 자들”의 용사이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여기서 “붉으며”(scarlet)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문자적으로는 “병거가 철의 광택으로 불붙는 듯하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즉 노송나무 혹은 실삼나무 창을 휘두르는도다. 호머도 창의 손잡이의 재료에 근거하여 종종 창을 “물푸레나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sup>57)</sup>  
매튜 헨리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아마도 그들이 이미 흘린 피로 물들었거나, 모두를 갈에 붙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또 붉은 깃발을 높이 내걸어,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다는 표로 삼았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이것은 그들이 파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암시하려는 붉은 옷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부를 암시하고 전쟁의 자금을 뜻하는 값진 옷도 뜻한다.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리라.” 그들이 접근할 때에 번개처럼 나를 뜻이 행할 것이다. 수레바퀴는 돌 위

나훔서 주석 VII

에서 불꽃을 일으키며, 그 병거를 모는 자들은 타오르는 듯한 진노에 휩싸여서 미친 듯이 몰 것이라고 주석했다.<sup>58)</sup>  
성을 바깥지역은 이미 점령당했고 니느웨 성벽이 공격당하자, 앓수르인들은 자기들의 군대 지휘관 및 군대를 그 성벽으로 떠밀고 갔지만 급하게 방어하려다 떠밀려 넘어지고, 빗발치는 적군의 화살과 창과 돌팔매로 날아드는 돌에서 피하려고 땅도나 ‘막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sup>67)</sup>  
니부갓네살의 장군들은 본문에서 그의 “존귀한자, 용감한 자, 영웅”이라고 불린다. “그는 그들을 생각해 내어” 즉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존귀한 지위에 실수 없이 앉아서, 그들로 거동을 시작하여 곧 전투를 개시하며 니느

웨의 포위를 위한 전쟁을 전개하도록 결정시킨다. “그의 존귀한 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읽는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의무와 그들이 맡은 직임을 숙고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할 일에 집중하게 되고,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보통 속력이 상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들은 엎드러질 듯이나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급히 성벽에 이르러” 참호를 팔 것이며, 그리고 막을 것, 곧 참호가 준비될 것이며, 그 포위를 좁혀갈 것이기 때문이다.<sup>68)</sup>  
이렇게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는 군사의 숫자나 장비, 훈련 등에서 앓수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sup>69)</sup>

- 주석 —  
56) 도날드 수누카만 외, 『BKC/강해주석 아모스 · 오바다 · 요나 · 미가 · 나훔』(서울: 사단법인두란노서원, 2003), p. 253.  
57) W. J. Deane, 『풀핏성경주석;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매튜헨리주석시리즈(30), 홍정수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2), pp. 160-161.  
67)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현대성서주석; 나훔-말라기』(한 · 미공동주석편집/번역위원 민경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 52.  
68) 매튜헨리,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매튜헨리주석시리즈(30), 홍정수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2), pp. 161-162.  
69) 시네편집위원회, ed., 『FMA크로스 종합주석 13 호세아-말라기』(서울: (주)포도원, 1999), p. 353.

소식



한교연 ‘2024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진행  
김장김치 7톤 담가 22개 사회복지시설·교회에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12월 21일 서울 동작구 세광중앙교회에서 ‘2024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현장에서 담근 김장 김치 7톤(10kg×700통)을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기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나눔 행사는 오전 9시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교연 임원과 교단(단체) 총무, 여전도회 회원 등 약 8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선 공동회장 양태화 목사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환영사를, 상임회장 김노아 목사가 격려사를,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한 후 명예회장 김병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매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주관해 온



한교연, 새해 맞아 ‘사랑의 쌀’ 3,000kg 전달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쌀 3,000kg을 전달했다.  
한교연의 ‘사랑의 쌀 나눔’은 연말연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차원에서 매년 진행돼 왔다.  
이번 ‘사랑의 쌀’은 지난 3일과 6일에 걸쳐 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불우청소년 보호시설인 선한사마리아공동체, 아동청소년희망재단, 수원 경원교회 독거노인들에게 각각 전달됐다.  
한교연은 매년 12월 총회 때 회원교단과 단체, 외부 기관으로부터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모은 쌀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승도가나안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오전: 9:00 1부: 9:30 2부: 10:00 주일: 11:00 수요일: 8:00 목요일: 8:00</div></div><div>담임 김의철 목사</div><div>220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40-8 전화 032-859-5000</div></div>	<div><div>연결고리패밀리처치</div><div><div>예배시간 1부예배 09:30 2부예배 11:20</div></div><div>담임 김명국 목사</div><div>1004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사로 329-21(유현리) 전화 (031)998-5025 / 010-5028-4319</div></div>	<div><div>오버플로우처치</div><div><div>예배시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목요일예배 저녁 8:30</div></div><div>담임 박성욱 목사</div><div>18479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원승로62, 2층 217호(동탄역삼정그린코아) 전화 010-9127-2010</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	<div><div>평안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3:30 수요일밤: 7:30 구약예배(금): 오후 7:30</div></div><div>담임 이경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
<div><div>재언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김규복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div></div>	<div><div>광일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장경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31)2687-4127 / 010-5004-0114</div></div>	<div><div>남광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담임 최갑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div></div>	<div><div>낙원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담임 김종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	<div><div>성현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오전 11:00 저녁 5: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야: 9:00</div></div><div>담임 강대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
<div><div>나눔의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야: 9:00</div></div><div>담임 박찬석 목사</div><div>549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녀마2길 4(나눔요양병원) 전화 010-3656-2537</div></div>	<div><div>종심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박경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현동, 일산위브(제1사)) 101동 2507호 전화 010-8800-5342</div></div>	<div><div>모악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0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홍주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종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	<div><div>한빛교회</div><div><div>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담임 임웅태 목사</div><div>0477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	<div><div>호산나교회</div><div><div>예배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div></div><div>담임 임승구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1번길 39 전화 010-6233-1044</div></div>



재미있는 광야의 도-7



박공서 목사  
(새부천교회 담임)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각종 환란의 표면적 현상보다 그 이면에 있는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환란을 십자가라고 표현한다. 대환란의 도를 아는 것은 곧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환란이던 간에 천국 순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환란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행14:22)

한마디로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는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 받는 영적 광야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훈련받는 영적 광야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 주의자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존재하던 교회가 갑자기 4장부터 사라져서는 그 이후 대환란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 환란 직전에 다 휴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요점은 대환란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그런지 성경말씀 따라 알아보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광야로 불러나온 사람들' 즉 '광야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광야교회라 칭한다. (행7:38)

교회는 가나안 땅도 애굽도 아닌 오직 광야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환란은 영적인 광야와도 같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을 바꾸는 어불성설이다.

대환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점프하여 가나안땅으로 직행했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혹자는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중에 이삭줍기 일꾼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음을 받아 구원 받는 내용의 책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가 없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의 책일까? 물론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우선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증거 하지 않는다.

대환란의 장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두 증인에 의하여 전도 받아 양육되고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특별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구원 받아 광야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편적인 훈련장이다.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환란)에서의 훈련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속13:8-9) 대환란 속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구분은 교회시대에만 한정되는 표현일 뿐이다. 성경 66권 전체는 구원 받아 광야에 나온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이다. 그 어떤 책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유대인을 모형으로 인류 전체로 확대 해석하다가 유독 요한계시록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축소 해석을 할까?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다. 그 어떤 논리적인 말도 요한계시록의 성경됨을 무시한다면 이단사설일 뿐일 것이다. 우리는 성경66권이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논리마저 부정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요한계시록은 특정 민족만의 구원을 다룬 율법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다룬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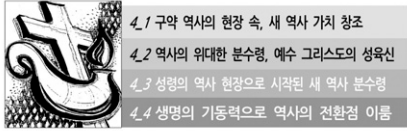
대환란의 장은 구원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강하게 훈련받은 영성 훈련장이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대환란의 모형이다. 광야에 성막이 존재하듯이 영적 광야인 대환란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의 장이 되어 속죄 은총을 적용시켰듯이 대환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산제사로 속죄은총이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모태이다. ( 롬12:1)

십자가의 고난과 신앙생활은 뭘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이다. 대환란은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집하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언하지만 대환란은 속죄 은총을 적용받아 거룩해지는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된다. -무아-

바이블칼럼



배수영 목사  
(예순글로벌교회 담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격랑의 물결을 일으키며 소요를 발생해 왔으며, 몇 가지 주제를 구속사 줄기에 맞춰서 제시합니다.

4.1 구약 역사의 현장 속, 새 역사의 가치 창조

아담의 에덴 타락(Lost Paradise)부터 구약의 역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The Judgment of Flood,

역사의 전환점 The Turning Point of History

The Time of Noah),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Exodus of Israel's People),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Depression Jerusalem), 기독교의 로마 제국 정복(Invasion of Rome by Christian), 이슬람교의 확산(Extension of Islam), 도시 국가들의 합병, 르네상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등은 지상의 시 공간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세상의 중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지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초림(First Coming) 만큼 새 역사를 창조하거나 새 가치관의 정의를 내린 일은 없었습니다.

4.2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 예수 그리스도

- 구약 역사의 현장, 새 역사의 가치 창조

세상의 중대한 전환점은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초림 만큼 새 역사를 창조하거나 새 가치관의 정의를 내린 일은 없다. Old Testament historical in creation of new historical values,

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자신들의 소유인 동물과 화생물, 정교한 의식들, 율법과 규범들,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임시적인 것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긴장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과정으로 보는 구약의 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4.3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시작된 새 역사

- 역사의 위대한 분수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으나, 임시적인 것밖에 되지 못했다. The Great field of History, Incarnation of Jesus Christ

의 분수령

신약의 역사 현장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면서, 세상은 그때부터 새 역사의 분수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상(傷)하고 망쳐버린 세상을 건지기 위해 뼈 마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한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놓은 사람들, 12사도, 바울, 복음사역 동역자들, 속사도, 교부, 감독, 각 시대의 복음의 주역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4.4 복음의 능력, 그 기동력으로 역사의 전

-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시작된 새 역사의 분수령
- 신약의 역사 현장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 성령 역사'이며, 뼈 마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이다. The new history that began with ministry of the Holy Spirit

환점 이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은 주어졌습니다(마19:20; 행1:8). 그 복음의 역동성은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 역사의 문턱을 넘어가서 21세기, 국가, 정치, 종교, 문화, 전통의 높고 두텁기만한 장벽을 기어이 극복하여 땅끝까지 퍼지고 확장하며 생명의 기동력(機動力)으로 세상을 이기고 '역사의 전환점' (The Turning Point of History)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존(現存)하는 삶의 현장에서 조성된 하나님 구속사의 전환을 가져다준 사실입니다.

- 복음의 역동성, 그 기동력으로 역사의 전환점 이름

복음의 능력은 뉴 밀레니엄 역사의 문턱을 넘어가서 21세기, 국가, 정치, 종교, 문화, 전통의 높고 두터운 장벽을 기어이 극복했다. Turning point in history with the dynamics of the Gospel

목회적 돌봄의 의미

현대인들은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연락하거나 직접 가 주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마음을 잘 여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서만 안 된다. 직접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에서의 견해이다.

Pastoral care 현장은 꼭 교회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어느 곳에서나 Pastoral care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다. 그들에게는 찾아가서 얘기하고, 필요시 기도, 예배가 바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앉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대화하는 그곳,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즉 교회 안에 서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수없이 많은 Pastoral care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선교의 영역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Pastoral care에서 보면 영적(spiritual)이라는 것이 꼭 종교인, 비종교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아서

(Entire Human Person) 인간의 모든 내면(feeling)을 영적인 것(spiritual dimension)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슬픔, 고독, 분노, 사랑, 즉 중교인이든 아니든지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되어 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이런 Pastoral care의 접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Thinking Level"과 "Feeling Level"이다. 다시 말하면 Pastoral care는 머리와 머리의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의 상호작용이라 보는 것이다.

Thinking Level은 "완전주의자"와 같은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사건을 먼저 머리로, 생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그러기에 "맞다, 틀리다"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버린다.

이것은 학교 선생식이 되고, "Teaching Ministry Style"이 되어 그것에 만족하게 되고, "나는 나, 너는 나"식으로 끝나 버리므로 어떤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 머리에서 땀drop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 버리는지 모른다. 효과적인 목회가 결코 되지 못한다.

한번은 루터교 목사님을 안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철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건폴다이어에서 공부한 분이였다. 23년째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가르침'이나 '설교목회'로만 이해하고 계셨다.

상담 마저도 가르치고 배우는 식으로 해 왔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23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런 목회 철학을 Pastoral care 개념으로 바꾸는데 다섯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개월이 걸렸다. 그것도 이제 막 눈을 뜨는 단계에 불과했다.

목회의 대상인 사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르치고, 상대하면 서로의 영혼이 만날 수 없고, 헤어지면 끝나 버리는 것이다. 나 도 신학교 시절에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교수님이 나보고 "너는 머리는 발달되었는데, 가슴(feeling)은 발달되지 않았구만. 그게 가지고는 제대로 목회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하셨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목회에서 가끔 있는 일이긴한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교인들은 "We need you"그러는데, 목회자는 "Thinking Level"에서 6하 원칙에 맞추어 따지고 있다. 막 죽어 가며 찾아왔는데, 몸은 꼼짝 않고 머리로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회자들께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다. 머리에서 머리로만 전달되는 목회, "옳으나 그르냐"만 갖게 되고 또한 그런 교인들만 역시 만들게 되고, 타인에게 감화나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혹시 교인들이 존경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인격이나 그 목회 철학에 감동되어 그런 것은 결코 아닌것 같다. 돌아서서 쓴웃음만 짓고 만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슬픈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왜 예수님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care(individual care)했으며, 가슴으로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6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3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10008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정만득 목사</div><div>전라북도 전주시 안산시 삼천현로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덕소제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박만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
<div><div>높은뜻세움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김진석 목사</div><div>22859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25 동양파라곤A 단지내 정문 옆 전화 010-2307-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3:00 수요일: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암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중울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3:00 삼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김정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243-0344 / 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 7:30</div></div></div><div>담임 박준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덕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서현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최현우 목사</div><div>550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 1길 18-3 전화 010-7937-1391</div></div>	<div><div>전주삼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div>담임 박효한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81 전화 010-4335-4748</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성북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예순글로벌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오후 2:00 수요일: 7:30 금요일아: 오후 9:00</div></div></div><div>담임 배수영 목사</div><div>01489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북로66길 1709-203 전화 010-3088-0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 사이버 총회신대원 모집요강

본 **사이버 총회신대원**은 개혁신학 신조에 입각하여 깊이 있는 신학교육과 연구과정을 통해 신본주의와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 온 교회와 열방에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단의 사이버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 ■ 운영

- ① 교육 과정명 : 목회연구과정(M.Div.EQ)
- ② 교육기간 : 1년 6개월(연 4학기운영, 총6학기)
- ③ 이수학점 : 96학점(졸업논문 포함)
- ④ 교육방법 : 영상수업(on-line)과 대면수업(off-line) 병행

## ■ 특전

- ① 본 총회신학원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 가능
- ② on-line& off-line 수업 병행으로 학비와 시간 절감
- ③ 본 교단에 준목고시 후 각 노회에서 목사안수 가능
- ④ 다양한 장학 제도

## ■ 지원자격

- ①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
- ② 본 총회신학원이 인정하는 학력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 ■ 교육과목 (과목변동가능)

- ①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과목별 3학점), 졸업논문(4학점)
- ② 졸업논문은 P/NP로 학점을 부여함.

## ❗ 특별진학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1학기 off-line 과정후 준목고시 자격
- BA학사와 석, 박사학위 과정, 필리핀 시립대학교와 MOU
- 학위 취득 및 장학 관련 문의는 총회신대원으로 문의하세요.

문의 : 사무총장 박만진 010-6358-0191

## ■ 과정 별 강의계획서 보기

- 1과정 강의계획서 >> 2과정 강의계획서 >> 3과정 강의계획서 >> 4과정 강의계획서 >> 5과정 강의계획서 >> 6과정 강의계획서 >>

<http://rpck21.thezonedu.co.kr/>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대원** 원장 임종학 박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09

## 2025년 제109회기 준목고시 공고

- 1. 고시응시자격 (총회인준신학교) 총회개혁신학연구원(사이버), 전북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한영대학교, 칼빈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신대학교, 수도국제대학교(M,Div)
- 2. 교부일정 1)원서교부 / 수도권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 개혁신학원(063-252-1531) 2) 제출처 : 전북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14 전북개혁신학원 행정실 고시부 서기 진상운 목사(010-3678-7664) 이메일-treping2@hanmail.net
- 3. ① 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포함) ② 최종신학교(신대원)연구과정 졸업증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원서접수 : 2025년 4월 30일(수) 우체국 소인까지 제 출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14 (전북개혁신학원 행정실) 고시부서기 진상운 목사(010-3678-7664)
- 4. 고시료 ① 월서대-20,000원 ② 접수비-100,000원 ③ 특강료-100,000원 ④ 심사비 및 응시료-300,000원 \* 단, 원서 접수시 접수비와 특강료를 수납하고 특강일 전에 심사비를 완납한다. \* 고시료 송금계좌: 국민은행 807701-00-01009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5. 고시과목 1) 논문주제 - 개혁주의적 교회와 국가의 관계 (문서작성 규정) 용지 및 방향 - A4용지 세로 글자체와 크기-바탕체 11포인트 줄간격-180 여백-위쪽 좌우25mm, 머리말 아쪽 꼬리말 15mm 쪽번호 아래중앙 분량 - A4용지 30매내외
- 2) 성경주해 주제 본문 : 레위기 20:1-16절 (A4용지 7-8매내외) 주제 : 자유선정 형식과 분량 : 논문과 동일.
- 3) 설교원고 주제 본문 : 사도행전 26:24-29절 주제 : 자유선정 분량과형식 : A4용지 4-5매내외)
- 6. 일정 및 장소 1) 예비소집 2025년 5월 20일(화) 오전11시 특강(세미나)장소 : 전국개혁신학원 3강의실 2) 준목시 :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전북개혁신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총회 고시부**

총회장 김명균 목사  
부 장 이경근 목사  
서 기 진상운 목사